

이오플로우, 코스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 ▶ 웨어러블 인슐린 패치 펌프 상용화 성공 → 글로벌 1위 기업과 정면승부
- ▶ 코스닥 상장 통해 '혁신적인 웨어러블 약물 전달 솔루션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

[2020-07-17] 웨어러블 약물 전달 솔루션 전문기업 이오플로우(대표이사 김재진)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1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오플로우가 이번 상장을 위해 공모하는 주식 수는 1,400,000주이며, 희망 공모가 밴드는 18,000원~21,000원이다. 공모 예정 금액은 252억 원~294억 원이다. 내달 수요예측과 청약율 거쳐 8월 중 코스닥 입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장 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가 맡았다.

이오플로우는 혁신적인 전기삼투펌프 기반의 웨어러블 약물 전달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회사는 2011년 설립 이후 웨어러블 약물 주입기의 기술적 난제로 꼽혀온 구동부 기술을 '저전력형 고성능 전기삼투펌프' 기술을 적용하여 확보했다. 최근 이 기술을 적용하여 중증 당뇨병인들을 위한 웨어러블 인슐린 패치 펌프 제품(제품명 이오파치; EOPatch) 출시에 성공했다.

이오파치는 이오플로우가 세계 두 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한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주입 솔루션이다.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환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제품으로 2005년 이후 웨어러블 인슐린 패치 시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인슐렛(Insulet)사의 강력한 경쟁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이오파치의 경우, 인슐렛(Insulet)사 제품 대비 성능, 편의성, 가격경쟁력을 모두 갖춰 글로벌 빅파마들과 대규모 공급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세계 50대 제약사인 이탈리아의 Menarini사와 향후 5년간 약 1,500억 원 규모의 유럽 독점 판매 계약 체결과 수주에 이어 미국, 중국 등 전 세계 대형 의료기기 및 제약사들과 잇따라 제품 공급 협상에 착수하는 등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대부분의 인슐린 주입기는 잦은 주사로 고통스럽고 사용이 불편하고 까다로워 새로운 제품 개발에 대한 니즈가 높았다"며 "당사의 이오파치는 3.5일간 사용하는 일회용 웨어러블 제품으로 편의성이 뛰어나고 방수가 되어 사용 만족도가 매우 높은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오플로우는 혈당 변화에 따라 인슐린 주입량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웨어러블 인공췌장과,

연속혈당센서와 펌프가 일체형 제품으로 결합된 일체형 웨어러블 인공췌장 등 차세대 제품도 개발 중이다. 더불어 비인슐린계 패치 펌프, 웨어러블 인공신장 등 다양한 의료 분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혁신적인 웨어러블 약물 전달 솔루션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오플로우 김재진 대표이사는 “기술성평가 A등급을 획득하여 이오플로우의 우수한 기술력은 이미 공인받았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웨어러블 의료기기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

<참고자료>

[이오플로우 IPO 일정(예정)]

증권신고서 제출	2020년 7월 16일
수요예측	2020년 8월 7일 ~ 10일
청약	2020년 8월 13일 ~ 14일
코스닥 상장	2020년 8월 내

공모주식 수	1,400,000 주
주당 공모가 액	18,000 원 ~ 21,000 원
공모 금액	252 억원 ~ 294 억원
상장예정주식수*	12,040,096 주
예상 시가총액	2,167 억원 ~ 2,528 억원

*희석가능주식수 1,133,456 주 포함

▣ 자료문의

이오플로우 이경준 전무(031-738-0201) / lkj@eoflow.com

IR큐더스 정유진 선임(070-5068-6341) / iyoujinjung@irkudos.co.kr